

# 도시·농촌 잇는 '복합 농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 현장리포트 선도농업을 가다

### 광주 대촌농협

광주 남구 대촌 들판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에 서 있다. 도심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넓게 펼쳐진 논과 시설하우스는 여전히 농업의 현장을 말해준다.

이곳에서 대촌농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 농업의 생산과 유통, 금융과 복지를 하나로 엮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도시 근교 농업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대촌농협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대촌농협의 성장세는 뚜렷하다. 2025년 기준 총 자산은 1988억원으로 전년 대비 301억원 증가하며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 금융업 매출채권은 1496억원으로 확대됐고, 금융업 예치금 역시 31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며 신용사업 기반이 더욱 견고해졌다.

자산 구조 전반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안정적인 것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채와 자본 구조 역시 내실을 다지는 흐름이다. 예수금은 1568억원으로 지역 자금의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본은 170억원 규모로 확대되며 출자금과 이익잉여금이 함께 증가했다. 외형 성장과 함께 내부 체력도 강화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손익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 2025년 영업수익은 173억원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경제사업이 87억원 규모로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영업이익은 17억원, 당기순이익은 11억원 수준으로 꾸준한 수익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사업 수익이 전년보다 10억원 이상 증가한 점은 유통과 판매 부문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용사업 부문에서도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 유동성 비율은 123% 수준으로 크게 개선됐고, 예대비율 역시 94%대를 유지하며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연체대출금 비율이 일부 상승했지만, 대손충당금 비율이 120% 이상을 유지하며 리스크 대응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경영 성과의 배경에는 생산과 유통을 연결하는 구조적 강점이 자리하고 있다. 대촌농협은 공동 선별과 출하 시스템을 통해 농산물 품질을 균일하게 관리하고, 조직 단위의 유통을 통해 판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농가가 개별적으로 시장을 상대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농협이 중심이 되는 유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또한 농협이 직접 농산물을 매입해 판매까지 책임지는 사업 구조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출하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이는 도시 근교 농업이라는 대촌 지역의 특성과 맞물려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영농자재 공급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사업이다.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촌농협은 공동 구매와 할인 공급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집중하고 있다. 영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가운데)이 부추 공동선별출하회 소속 농민들과 출하를 앞둔 부추를 선보이고 있다.

## 총자산 1988억원...생산·유통·금융 안정적 성장 8월 압촌동에 종합청사 착공...내년 하반기 준공 공동선별·매취사업 강화...현장 지원·복지 확대



대촌농협 종합청사 조감도

농협에 맞춘 적기 공급 체계는 생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도·교육 지원도 현장 중심으로 운영된다. 재배기술 교육과 병해충 방제, 토양 관리 등 과학 기반 영농 지원이 이뤄지며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지원사업 역시 꾸준히 확대되며 조합원의 영농 역량을 뒷받침하고 있다.

복지사업과 지역사회 연계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매년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 인재 육성과 조합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학생 자녀 14명에게 총 13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다문화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원로조합원의 생일을 챙기는 등 세심한 복지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대촌농협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 사업이 종합청사 건립이다. 기존 시설이 지닌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고, 경제·신용·지도사업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건물 신축을 넘어 조합원 서비스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광주 남구 압촌동 580번지 일원에 들어설 종합청사는 오는 8월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간 구성도 실용성과 복합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1층에는 하나로마트와 임대매장이, 2층에는 상호금융 사무실과 임대매장이 들어서며, 3층에는 문화센터와 사무공간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종합청사가 완공되면 조합원들은 금융 서비스부터 영농 지원, 자체 구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해당 공간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돼 농협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대촌농협은 생산과 유통, 금융과 복지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며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종합청사 건립이라는 미래 인프라까지 더해지면서 조직의 기능과 역할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대촌농협 풋고추 공선출하회 선별장에서 농민들이 풋고추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 인터뷰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 “혁신·변화로 돌파...조합원 실익 집중”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서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은 변화와 혁신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는다.

그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올해는 ‘본립도생’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촌농협은 최근 몇 년간 외형과 내실을 함께 키웠다. 이 조합장은 “창립 이래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했고, 자산과 예금·대출 규모도 안정적으로 성장했다”며 “5년 연속 클린뱅크 ‘금’ 등급을 유지하며 건전성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농지원센터 현대화와 자체사업 최우선상 수상, 풋고추 소포장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경제사업 기반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으며 “조합원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이 조합장은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으로 농가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농약 구입비 일부 지원과 하우스 자체·비닐 지원, 비료와 포장재 사전 공급 등을 통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병행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대촌 지역 농업의 가장 큰 위기로는 시설 노후화를 꼽았다. 그는 “지역 내 시설하우스 상당수가 설치된 지 10년에서 30년 이상 지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토양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품질과 수확량이 동시에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과 토양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농협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정부와 연계한 구조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과 판매 전략에 대해서는 “풋고추와 부추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판매 연계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계약재배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와 도매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해 판로를 넓히고, 산지 직송과 직거래를 확대해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동선별과 공동출하 체계를 통해 품질을 균일화하고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포장 개선과 브랜드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인지도도 강화하고 있고, 온라인 판매 확대와 소비자 중심 마케팅을 통해 비대면 유통 채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촌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도 지속하고 있다. 이 조합장은 “농촌인력증진센터를 통해 매년 1만건 이상의 인력을 농가에 연결하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며 “항공방제와 기계화 작업 등 이농사업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팜 보급 사업을 통해 노동력을 줄이고, 고령 농업인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청사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추진해 농협의 복합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하나로마트와 APC 확장을 통해 유통 규모를 키우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영농자재 구매와 생활 소비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윈스톱 체계를 구축해 조합원과 지역 주민 모두의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대촌농협은 생산과 유통, 판매를 아우르는 종합 농협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조합원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